

느낌과 시선을 담는 음악기록의 신비로움

- 인터뷰이: 이주현, 박인희(음악기록팀)
- 인터뷰어: 허나윤
- 인터뷰 날짜: 2022년 9월 17일
- 장소: 은평생활문화센터 모여락

허나윤

녹음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막바지 작업인데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 작업 녹음 작업 어떠셨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주현

저는 음악 기록팀의 이주현이라고 하고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은평이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음악으로 열심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녹음실 안에서 녹음해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초반에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윤

그래서 녹음이 끝난 노래는 만족스러우세요?

이주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음악을 전공하긴 했어도 막 이렇게 작곡을 해본 건 또 처음이라 이 과정 자체가 처음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나윤

어떤 점이 아쉬우셨어요?

이주현

조금씩 이렇게 음이나 이런, 그리고 살짝씩 목이 거칠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빼고 녹음은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허나윤

인희님도 자기기 소개해 주시고 오늘처럼 노력 녹음 작업은 처음해보셨나요?

박인희

저는 음악기록팀의 박인희입니다. 오늘 음악 작업은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생소했는데 실제 이제 가사도 적어보고 멜로디 같은 것을 해보니까 그게 노래로 나오는 게 결과물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허나윤

신비롭다는 게 어떤 게 신비로운가요?

박인희

처음에 할 때 이게 기록한 게 음악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지도해 주시는 레이린님과 작업하면서 이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게 멜로디가 나오는 게 좀 신비로웠습니다.

허나윤

박인희님 녹음하실 때 보니까 귀여운 가사와 멜로디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노래에 어떤 걸 담고 싶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박인희

제가 구산동 도서관 마을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방문한 느낌을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둘러본 그런 장소들을 남기게 되었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를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 노래에서) '사각 창문'이라는 게 조금 앞에 뒤에 반복되는데 도서관이 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낮에는 창문이 반사되는 모습들이 비치고 또 찾아보니까 저녁에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빛나는 도서관 창문 사이로, 그 부분을 영롱한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빛나는 그게 따스한 느낌이 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았어요.

허나윤

주현님은 노래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이주현

저는 도서관 마을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그 마을에 있었던 주택들이 아직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은평에서 느꼈던 그 마을 골목,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는 여전히 그렇게 마을 느낌, 정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음악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낮게 낮게 곁에 곁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 멜로디도 빨리 떠올랐고 가사도 제일 먼저 잡기 시작한 거라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나윤

이번에 음악과 소리로 기록하는 작업은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처음에 기대했던 작업과 진행하면서 그리고 지금 녹음까지 한 상황에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주현

그전에 소리로 (아카이빙)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녹음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편집해서 했던 과정이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아예 제가 곡을 써보고 가사를 써보고 또 거기에 멜로디를 입혀 본 거 자체가 처음에는 진짜 감이 안 왔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창작과 기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찰한 것들을 어떻게든 잘 써보자 근데 음악에 담을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도 가사와 멜로디로 그 분위기와 느꼈던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도 담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개인적인 그런 느낌들은 잘 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음악은 그런 게 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작업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사실 소리 작업도 녹음을 해서 도서관 소리를 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고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녹음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허나윤

음악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주현

그 미묘한 제가 느끼는 원가, 제가 기록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느낀 그 장소의 느낌들, 그러면서 이곳에 대한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음악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노래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던 것들을 좀 더 추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왜 구산동도서관 마을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보편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산동도서관 마을을 아시는 분들은 그곳의 분위기를 담았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잘 남아있는 오래된 동네를 기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인희

우선은 기록에 대해서 수업 들을 때 그런 부분이 처음이었었는데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또 음악으로 표현한 거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어서 가사도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지 기록을 어떻게 써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같이 작업하는 주현님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평에 살진 않지만 은평이라는 동네를 많이 궁금해했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구산동도서관 마을’은 저한테 커뮤니티라는 그 의미가 와 닿는 곳이었던거든요.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도서관 마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설레는 그런 마음에 대해 담고 싶었어요. 다른 분이 처음 (구산동도서관 마을에) 왔을 때 노래를 듣고 ‘나도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걸 좀 공감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우리 마을이 이렇지 이런 곳이야’ 라고 공감을 느끼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아까 신비롭다고 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렇게 결과물로 실제로 나오니까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지금도 약간 '이게 꿈 아닌가' 라는....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니(웃음) 또 이제 주현님 노래 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같이 공간을 바라봤는데 느낌도 너무 다르거든요.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상상을 하는 느낌이 완전 달라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이렇게 노래로 나올 수 있구나

허나윤

인희님은 이번 아카이빙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은평을 처음 접하신 건가요?

박인희

제가 그냥 (불광동) 혁신파크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은평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은평이라는 동네는 그냥 뭔가 평화스럽고 공기 좋은 동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같이 수강하신 분들이 은평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동네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살아온 분도 있고 이사 갔다 다시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평은 사람들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동네인 것 같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마을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동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나윤

주현님도 이번에 아카이빙 작업하시면서 은평이라는 곳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주현

대도시인 서울을 살다 보면 소외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처음 은평을 알게 됐는데 은평에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마을을 조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고 그래도 한 명 한 명 신경을 쓰고 다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사실 도서관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상 깊게 봤고 그렇고 부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풍경들이 여전히 잘 남아

있고 도서관 마을처럼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리운 풍경들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허나윤

내년에는 또 새로운 분들과 은평 아카이빙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음악으로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주신다면?

이주현

가사가 그냥 글이 아니라 곡 안에 들어가는 리듬에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글인데 그런 작업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다 도전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사실 굉장히 본인이 느낀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기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꼭 한 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박인희

저는 평소에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사진이랑 글, 인터넷 서칭을 토대로 진행을 했고 이후에 가사 작업도 어려웠지만 그거를 써보면서 할 수가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도해주는 멘토님이 계셔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음악을 처음 접하시거나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주저 없이 저질러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